

나주 혁신도시 10명 중 4명 재택근무 ...전년비 2886배 증가

13개 기관 1만7317명 달해...한전 9399명·농어촌공사 2969명 順

올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3개 기관 소속 직원(4만3677명)의 40%에 달하는 1만7000여 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근무 인원 3분의 1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연말까지 재택근무 인원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13개 공공기관·공기업의 올 3분기 누적(9월 말) 재택근무 인원은 1만73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 13개 기관의 총 재택근무 인원 '6명'과 비교하면 무려 2886배 늘어난 수치다.

이는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재택근무를 한 번이라도 한 인원이 반영됐으며, 중복 재택근무 횟수는 기재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재택근무를 일주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1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재택근무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본부와 지사 등 재택근무 현황이 반영된 수치라 하더라도, 나주 혁신도시 전체 이전인원 7745명(올 10월 기준)을 크게 웃돈다.

기관별로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한 기관은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의 3분기 누적 재택근무 인원은 9399명으로, 전체 정원(2만3399명)의 40.2%가 집에서 일한 셈이다.

한전은 '알리오'에 공식된 전국 360개 기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1만42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재택근무 인원이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한전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2969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 그룹사인 한전 KDN(1522명)과 한전KPS(1274명)가 뒤를 따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78명), 한국인터넷진흥원(529명), 한국콘텐츠진흥원(253명), 한국전력거래소(241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나주 혁신도시 재택 근무 현황 (단위:명)

기관	인원
한전	9399
농어촌공사	2969
한전KDN	1522
한전KPS(주)	127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78
인터넷진흥원	529
콘텐츠진흥원	253
전력거래소	241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34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60
사학연금공단	12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7
농촌경제연구원	7

(234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160명),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124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7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재택근무 인원이 전국 상위권에 든 곳은 한전(2위), 농어촌공사(10위), 한전KDN(17위), 한전KPS(21위) 등이 있었다.

전국 360개 기관의 재택근무 인원은 3분기 누적 기준 13만4575명으로, 기관당 373.8명 꼴로 재택근무를 했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의 평균 재택근무 인원은 1332명으로, 전체 재택근무의 절반 이상(54.3%)을 차지하는 한전 영향이 컸다.

올해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인력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에 따른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직원들은 올해 들어 재택근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이용해 왔다.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우려가 커지자 심각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재택근무 등을 권장했다.

재택근무에 이어 혁신도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는 시차 출퇴근제였다. 올해 시차출퇴근제 이용 인원은 한전 2860명을 포함해 13개 기관 62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5761명)보다 439명(7.6%) 늘어난 수치다.

특정 기간 안에 주 40시간 근무를 유동적으로 지킨 '탄력근무형'은 6094명이 이용했고, 근무시간을 선택한 인원(근무시간 선택형)은 9245명이었다. 역시 유연근무의 하나인 '선택근무형'은 490명, '집약근무형'은 47명만 이용했다.

스마트워크 센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인원은 전년보다 2.6배 많은 14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강화된 근무 지침을 먼저 시행해왔다.

지난 11월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은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무안 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11일 '무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과 무안군은 이날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착수를 알렸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상수관망 정비 등을 통해 유수율을 85%로 끌어올려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총 236억원을 투입한다.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올해부

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불룩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정비 등을 벌인다.

수자원공사 측은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군민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량 절감을 통해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용과 수돗물 생산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전남지역협력단 직원들은 개소식과 함께 무안군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성금 2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사랑의 연탄 배달'

광주은행 송중옥(오른쪽) 은행장과 신입행원 30여 명은 지난 11일 북구 동림동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연탄 1000장을 배달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한전KDN '커뮤니케이션 대상' 2관왕

웹사이트·인쇄사보 공공부문

■로또복권 (제94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14	25	27	39	40	3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47,297,422		16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1,296,473		87	
3	5개 숫자일치		1,097,037		3,275	
4	4개 숫자일치		50,000		145,544	
5	3개 숫자일치		5,000		2,282,851	

한전KDN은 최근 열린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2개 부문을 동시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상 부문은 웹사이트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상과 인쇄사보 공공부문 편집 대상이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한전KDN 홈페이지(kdn.com)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객선호 정보를 우선 배치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국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채널'을 목표로 '대국민 소통채널', '알기 쉬운 전력ICT 솔루션 서비스', '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알리고 있다.

한전KDN 사보인 'KDN 라이프'는 3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부문 대상을 받아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NCS 기업 컨설팅 참여 2곳 장관상

광주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제이디씨파트너스주와 ㈜성우테크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이디씨파트너스주는 설립 3년차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로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NCS에 기반한 직무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직무기술서 개발을 비롯해 능력중심의 인사채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성우테크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기업으로 NCS 기반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을 리모델링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직급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53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한편,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NCS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2014년 시범사업부터 참여해 올해까지 지역 101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예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아듀, 코로나 2020 예술로 위로 받다

모두가 분투했던 한 해, 예술을 만나는 애뜻한 순간
코로나 블루 털고 송년은 문화와 함께
해님, 해돋이 가는 길에 만나는 미술관

가획: CULTURE 2020

되돌아본 올 한 해 문화계

문화는 품은 건축물④
소박한 작품 많은 담백한 미술관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

클릭, 문화현장②
예술 온기 전하고,
창작 밀어주는 메세나 산실
북한문화공간 '김넷과'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⑩
칸딘스키, '불협화음'에서 추상화 돌파구 찾다

예향 초대석

'미술대중화 아이콘' 미술사가 양정무

"우리 안의 미술적 본능 깨워준다"

문화 화제

낯은 집의 이유있는 변신
갤러리가 된 주택들

송년기획-재즈에 빠지다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재즈에 몰들어 보세요

문화 트렌드

문화 콘텐츠 집어삼키는
블랙홀, 게임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헤르만 헤세 '데미안'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

배극남의 대중문화 X파일⑤

금기에 도전하는 연예인들

유현준의 도시건축⑥

영화 속 공간, 계급 차의
은유가 숨어있다

화제의 전시

광주YMCA 100년 역사
'영맨, 광주를 움직이다'전

예향만 만 이 사람

신작 극영화 '매미소리'로 돌아온 감독 이충렬
국방의무 후 2021시즌 복귀 심동섭·김유신

싸움싸움 남도 한 바퀴-영암

역사·전투 속으로
영암 氣한 여행
역사의 보물 찾아가는 길
대령감, 나지, 한우